



지구촌 실천불교 운동가

(3)

티벳 달라이 라마

“가난·인권말살등 세계평화 위기 동체대비 형제에 내면 해결됩니다”

약 력

- 1935 티벳 타르처에서 출생.
- 1936 제 13대 달라이 라마 툽텐 기초의 환생자로 확인
- 1938 제14대 달라이 라마로 추대.
- 1950 중국의 침공을 받고 티벳 대변.
- 1959 노블링카 폭력 직전 라사 탈출
- 1959 인도 달살라 임시정부 수립
- 1961 유엔총회에 타벳문제 상정해 결의문 채택
- 1989 노벨평화상 수상

“유엔 회원국들은 티벳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의 금지를 다시 한 번 엄숙하게 요청하며 회원국들은 이 결의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다짐한다”는 결의문을 다시금 채택했다. 그러나 1980년대말 티벳에서 대규모 유혈 시위가 벌어지고 1만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달라이 라마는 독립에서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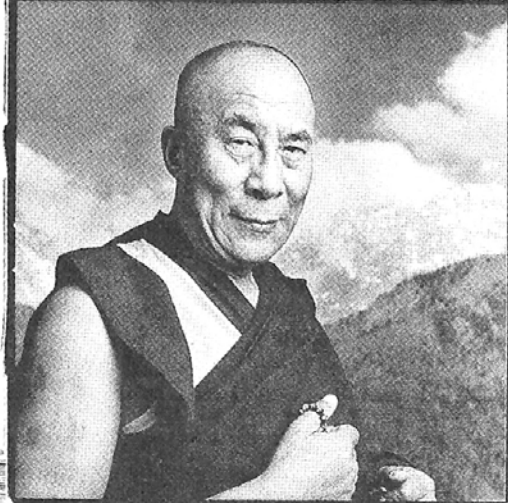
(SLORC)에 의해 구금돼 있고 그녀의 기본권이 거부되고 있어 유감을 표시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995년에는 중국의 반체제인사인 위경생 등의 석방을 촉구하는 등 국제적인 인권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또 1995년 “전쟁도발국·인권탄압독재정권·비민주적 거국기에 대한 무기수출 전면금지”를 주요골자로 한 ‘유리강령’을 제정한 달라이 라마는 이를 유엔에 제출했다.

90년대에 접어들어 달라이 라마는 해외순방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1994년 미국과 영국을 방문한 달라이 라마는 “티벳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중국은 한족을 무더기 이주시켜 티벳에 대한 인종청소를 자행하고 있어 조만간 티벳은 거대한 차이나 타운이 될 것”이라고 말해 중국정부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를 순방한 뒤 바티칸을 찾아가 교황을 만났다. 이 해외순방은 ‘등소평의 사망에 따른 정치적 공백을 티벳독립운동의 고리로 활용하려는 측면’이라고 세계정계의 분석이 회자되기도 해 티벳

SHAMBHALA SUN

The Next Great Cause?



Robert Thurman interviews the Dalai Lama on how to save Tibet, its people, and sacred culture.

◇ ‘티벳의 자치권 획득·문화유산 보호’,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미국의 불교 시사잡지 <삼발라선>(최근호)의 커버스토리를 장식했다.

티벳독립등 비폭력운동 헌신

나의 믿음은 “자비정신으로 인류교화 가능하다”

노벨평화상 수상... ‘무기 수출금지강령’ 유엔 제공

달라이 라마는 1935년 티벳 동북지방의 타르처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두 살 때 제13대 달라이 라마 툽텐 기초의 환생자로 관망되 제14대 달라이 라마로 추대됐다. ‘달라이’는 몽골어로 ‘큰 바다’라는 뜻이고 라마는 티벳어로 ‘스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50년에 이르러 중국이 티벳을 침략하면서 달라이 라마는 종교지도자로서 사원수행보다는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티벳명정부의 수장으로 서, 비폭력을 신봉하는 종교적 지도자로서 변모해 갔다.

중국침략 당시 19세였던 달라이 라마는 티벳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해 북경에서 모택동(중국공산당주석)과 회담을 개최하는 등 중국과의 화해를 다각적으로 시도했으나 모든 것이 허사로 끝났다. 그러자 달라이 라마는 “우리 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도이며 무자비하고 잔악한 학살의 즉각적인 종식이 시급하다”며 당시 유엔사무총장인 닐슨 하마홀트에게 서

안을 보내 국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력은 1959년에 이르러 “유엔헌장과 국제인권선언 원칙의 존중이 법의 통치에 기초를 둔 평화적인 세계 질서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확인하며, 티벳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그들의 독특한 문화의 종교적인 생활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유엔총회 결의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1959년 티벳의 독립투쟁이 더욱 번져나기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갔다. 마침내 달라이 라마는 1959년 노블링카 폭력 직전 인도 다람살라로 망명했다.

이후 달라이 라마의 활동은 국제무대로 옮겨지고 티벳독립 뿐만 아니라 인권·평화·비폭력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인도에서 티벳 망명정부와 달라이 라마는 국제기구로하여금 티벳독립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리게 하는데 성공해 1961년 제16차 유엔본회의에서

전한 자치’ 쟁취로 선회했다.

한편 달라이 라마는 “전쟁반대는 종교 지도자이며 인권운동가”라는 국제적 평가에 힘입어 198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달라이 라마는 노벨상 수상식에서 “세계는 폭력·기아·가난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동체대비의 형제애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모든 종교인은 이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해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인의 이해를 요구했다. 또한 “티벳인은 라사에서 평화를 맞이할 것”이라며 티벳독립을 거듭 천명했다.

이후 달라이 라마는 1993년 ‘세계종교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번번히 종교 지도자들이 침략과 광신, 증오, 외국인 혐오 등을 선동하고 심지어는 폭력과 유혈분쟁을 조장, 합법화하고 있는 사태를 개탄한다”며 다원화되어가고 있는 세계종교계의 화해와 우호를 천명하기도 했다.

또 “수지 여사가 아직까지도 미안마 군사통치기구인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

독립을 위한 그의 종교적·문화적 노력 뿐만 아니라 정치적 노력까지 엿보이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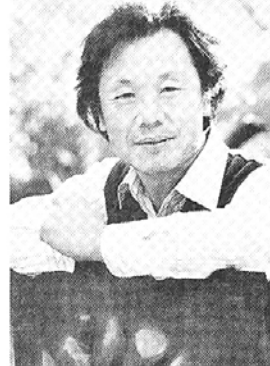
달라이 라마는 최근 ‘마틴기어의 귀향’을 제작해 널리 알려진 장 클로드(영화감독, 佛)와의 인터뷰에서 “나의 믿음은 확고하다. 우리는 반드시 숭고한 영성(靈性)을 찾을 것이며 이러한 새기념을 종교와 나란히 고양시킬 것이다. 또 바로 이 길에는 모든 인류의 선한 마음이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지난 3월 런던과 뉴욕의 인권단체들이 “티벳의 수도 라사에 계엄령이 내려진 직후인 지난 90년 69명에 이어 93년 2백89명, 94년 2백31명이 각각 체포됐다”라며 티벳인에 대한 중국의 탄압이 더욱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국은 최근 티벳 분리·독립세력과 달라이 라마의 영향력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한 ‘15년계획’을 세웠다.

오종욱 기자

나의 수행일기

강대철 <소각간>



모든 인연은 필연이라고 한다. 우연이란 없다는 것이 인연의 법칙이고 보면, 나 같은 평범한 조각가가 이 시대에 가장 높은 정신세계에 이르신 어른으로 존경받는 성철스님의 존상(尊像)을 제작하게 된 것을 보면 장생에 조금은 복을 지어놓은 바가 있기는 한 모양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성철스님의 존상제작은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고마운 인연이다. 정식으로 제작의뢰가 없었더라도 나는 스님의 사상과 정신세계에 깊이 경도되어 있었다. 때문에 스님 일반 이후 개인적으로 그분의 사상과 모습을 나의 작품세계에 연결시켜보고 싶었던 터였다. 그래서 지난 일년 남짓한 존상제작 기간은 내 나름대로 스님으로부터 법문을 듣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분이 도달하신 깨달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조금이나마 그 세계에 가까이 다가서어만 형상으로 드러나는 존상의 모습 속에서 스님의 체취가 전

아서 해주지 않으면 전 책임을 못잡니다. 스님이 육체를 버리셨으니가 전 스님한테 순간 빌려드리는 겁니다.”

때를 쓰듯 스님한테 무조건 매달리는 마음으로 제작을 하면서 작업진행이 순조로워진 것은 분명 스님의 보살심이 있었기였다. 간절히 기구하는데 어찌 스님께서 나물라라 하시겠는가. 그렇게 제작하는 마음 자체가 기도하는 마음자리로 자리잡혔을 때 한점 한점 붙여지는 점토조각은 스님의 가피를 받으며 나의 두꺼운 업장을 한점한점 떼어내는 일이기도 했다.

불교의 이치를 나의 인생속에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몇번의 종교편력을 거치고 나서였다. 지식으로 풀수 없는 문제

성철스님 존상제작 ‘고마운 인연’

“검소하게 자기 다스린 가르침 얻는 계기됐어요”

달되리라 싶어 왜나 조바심을 치며 애를 쓴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욕심으로 다가서면 설수록 스님의 이미지를 찾아내는 일이 힘들다는 것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종교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이 종교 저 종교를 기웃거리게 되었던 것이나, 어느 곳에 서도 방향하는 내인생을 안주시키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불혹(不惑)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불교의 이

치를 만나게 된 것인데, 그 만남은 내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정리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내 작품세계의 회두처럼 되어버린 생명에 관한 주제가 불교의 이치를 만나면서 구체성을 갖게 되었고, 내 인생과 작품속의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정신적인 조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 셈이다.

작업이 뜻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을때 스님께서 평생을 자리하고 계시던 백련암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렇게도 검소하게 자신을 다스리시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지혜를 전해 주시려던 그 자리에 서면 스님의 기운이 느껴지곤 했다. 그렇게 스님의 기운을 더불어 함께한 지난 일년여의 시간이 내 인생에서 한걸음 더 진리로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기에 스님께 감사하는 마음뿐이다.

웃을 만드는 일에는 ‘정성’이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사람은 왜 웃을 입는가’ 라는 질문으로 어느새 30년의 세월이 흐른다’

입에서 자연스러운 웃을 만들기 위해 첫인상 따라 색상, 디자인을 결정하고 컴퓨터로 재확인 한다

예복이란 매우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입는 옷

- 세계적인 이태리 원단 사용
- 95% 이상을 수작업으로 진행
- 맞춤복과 큰 차이가 없는 가격
- 컴퓨터를 통한 색상과 디자인 샘플링 작업
- 고객 자신이 미리 자신의 착용 모습 컴퓨터로 확인



예복의 집 SUN-SHINE 권오수 합장

사회자와 주례사 그리고 양가외 부모님들까지도 신랑 신부와 어울릴 수 있게 격의를 살린 예복을 갖춰야 합니다.

“혼이 깃든 예복 장인 30년”

몸보다 마음에 맞는 옷 만들기

- 본 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마B/D 1F TEL : 514-1118/9
- 공방터미널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6 TEL : 551-0833